

쑤통(蘇童)의 신사실소설에 나타난 소시민의 비극적 생존양상 고찰

장윤선*

◁ 목 차 ▷

- I. 신사실소설과 쑤통
 - II. 일상의 억압과 폭력에 피폐된 영혼
 - 1. 〈일요일 아침(一個禮拜天的早晨)〉
 - 2. 〈이혼지침서(離婚指南)〉
 - 3. 〈결혼한 남자(已婚男人)〉
 - III. 쑤통의 신사실소설의 특징 및 의의
-

I. 신사실소설과 쑤통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말 1990년대를 전후로 중국 사회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밖으로는 동구사회의 몰락과 사회주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큰 변화와 안으로는 천안문사태 발발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중국 사회 내에는 탈이데올로기, 탈정치적인 기류가 고조된다. 이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는 중국문단에도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문단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온다. 우선 획일화된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거대담론이 후퇴하자 문학의 '거대 서사' 또한 입지점을 상실하게 된다. 이어서 그동안 '거대서사'의 명분하에 사회적·역사적 관념과 의식의 보편적 주체로 등장했던 '집단적 자아', '공동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가 텍스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반면 작가들은 개인적인 삶의 가치가 강조되고 개인의 생존 현실이 우선시되는 '나의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끄집어내

*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부교수

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간 거대자아의 위세에 눌려 눈치를 보고 전전공공하던 '일상적 자아'가 당당하게 텍스트에 등장하고,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일상성'이 텍스트를 수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9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문단에는 '미시담론'과 '미시서사'가 전면으로 등장하며 새로운 문학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사실소설'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사실소설'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창작조류로 이 명칭은 장쑤(江蘇)성의 대표적 문학잡지인 《쑹산(鍾山)》이 1989년 제3기부터 '신사실소설대연전(新寫實小說大聯展)'이라는 특집기획을 마련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서문에서 편집부는 신사실소설이란 용어의 이론적 정의, 창작방법과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사실소설의 창작방법은 여전히 사실을 서술한다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삼되, 특별히 현실생활 원래 모습으로의 환원과 현실과 인생을 진실하게 바라볼 것에 역점을 둔다. 비록 전체적인 문학정신에서 보자면 신사실소설은 리얼리즘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지만, 새로운 개방성과 포용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더니즘의 각종 유평과 예술상의 장점을 흡수하여 참고하고 있다. 신사실소설이 생활을 관찰하고 세계를 파악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뚜렷한 당대의식을 갖출 뿐 아니라, 그 안에 강렬한 역사의식과 철학의식을 또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사실소설은 과거 거짓된 리얼리즘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일종의 보다 풍부하고 폭넓은 문학 세계를 추구한다. (新寫實小說的創作方法仍是以寫實為主要特征，但特別注重現實生活原生形態的還原，真誠直面現實、直面人生。雖然從總體的文學精神來看新寫實小說仍可劃歸為現實主義的大範疇，但無疑具有了一種新的開放性和包容性，善於吸收、借鑒現代主義各種流派在藝術上的長處。新寫實小說在觀察生活把握世界的另一個特點就是不僅具有鮮明的當代意識，還分明滲透着強烈的歷史意識和哲學意識。但牠減退了過去偽現實主義那種直露、急功近利的政治性色彩，而追求一種更為豐厚更為博大的文學境界。)1)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또한 문학이 객관적 현실의 리얼리티를 반영하고 재현한다는 리얼리즘 문학 창작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다만 여기에

1)本刊編輯部〈“新寫實小說大聯展”卷首語〉：《鍾山》1989년 제3기, 4쪽.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이 덧칠되면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해석되고 가공된 현실이 텍스트를 뒤덮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형화된 환경과 전형화된 인물이란 요소가 적극 개입되었다. 물론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사실소설도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리얼리즘 문학 창작원칙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중국문단이 견지해 온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반영의 서사 방법에 있어서는 엄격한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서문 중 ‘現實生活原生形態的還原, 眞誠直面現實、直面人生’이라는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사실소설을 정의할 때 논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이 문구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변별되는 신사실소설의 문학적·미학적 아이덴티티가 집약되어있다. 신사실소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덧씌워진 획일화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창작원칙에 반발하며, 종전의 문학이 추구하던 ‘전형’성의 족쇄로부터 현실을 해방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현실생활을 본래의 면모대로 ‘환원’함과 동시에 현실과 인생을 진실 되게 바라보고 이를 문학적으로 진실 되게 묘사할 것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신사실소설은 ‘크게 쓰여진 인물(大寫的人)’이 아닌 ‘작게 쓰여진 인물(小寫的人)’로 대변되는 소시민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생존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신사실소설은 당시 중국의 특수한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소시민들이 직면한 고달픈 생존환경과 그들의 생존 대응방식, 그들이 느끼는 다양한 생존감성 등을 묘사하는데 주력한다. 아시다시피 츠리(池莉), 류전윈(劉震雲), 팡팡(方方), 류형(劉恒) 등은 중국문단에 신사실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구축한 대표적 작가들이다.²⁾

쑤통은 1990년대를 전후로 그동안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서사형식을 보여준 선봉소설을 지양하고 현실생활에 바탕을 둔 일련의 신사실소설을 창작한다. 쑤통이 선봉소설에서 신사실소설로 전환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전환기의 문화 환경 속에서 거대담론이 퇴조하고 이를 대신하여 부상하는 미시서사와 미

2) 천쓰허(陳思和)는 신사실 작가들로 葉兆言, 李曉, 範小青, 趙本夫, 周梅森, 蘇童 등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신사실 작가군에 속하는 작가들은 창작 스타일에서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획일적인 하나의 범주로 개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신사실 소설은 단지 특정한 시기에 출현한 창작경향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문학유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陳思和 《中國當代文學史教程》(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9), 306쪽과 320쪽 참조.

시담론을 마주하며, 쑹통 역시 당시 문인들처럼 문학적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쑹통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선봉소설이 난해한 텍스트로 인해 일반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에 처해있었기에, 새로운 문학적 전환과 모색이 시급했다. 아울러 고정된 문학적 스타일에 안주하는 것을 싫어하고 다양한 문학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쑹통에게,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문학적 변신에 대한 그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기회이자 적기였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줄곧 변화무쌍한 소설 풍격을 갈망해왔다. 나는 '풍격'의 관성에 매이는 것이 두려우며, 내 스스로 구축한 예술함정에 빠지는 것은 더욱 두렵다. 나는 신작들마다 스스로 도전적이며 새롭고 낯선 마음가짐을 갖기를 갈망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글 쓰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믿기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 (作爲一個寫作者, 我始終渴望一種會流動會搖曳的小說風格, 害怕被固定在'風格'的慣性中, 更害怕陷于自己設置的藝術陷阱中, 我渴望對每一篇未竟的新作有挑戰性的新鮮陌生的心態, 我相信這也是一個寫作者最好的心態, 因此我作出了種種努力。)3)

창작담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쑹통은 선봉소설 이후로 수많은 창작물을 쏟아내며 그때마다 새롭게 변모된 모습으로 다채로운 문학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그의 문학체적에 선봉소설에서 신사실소설로의 전환이라는 하나의 획이 그어지게 된 것 역시, 선봉소설이 갖는 문학적 관성이나 고착화된 예술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결단과 전환기의 문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소설 풍격을 추구하고자하는 그의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쑹통이 일련의 신사실소설을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은 본인의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술한 동시대 신사실 작가의 작품들과 비교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보았다. 첫째, 쑹통에게 덧씌워진 '선봉작가', '신역사주의 작가'라는 수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다 보니, 독자와 평단의 관심은 주로 선봉소설이나 신역사주의 계열의 작품에 집중되었다. 둘째, 츠리, 류전윈, 팡팡, 류형 등으로 대표되는 '신사실소설' 작가와 작품이 문단과 독자의 화려한 주목을 받고

3) 王海燕〈蘇童論〉;《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1995年 제2기, 120쪽에서 재인용함.

지금까지도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그 명성에 가려 쑤통의 작품이 차지하는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고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쑤통의 신사실소설 창작과 관련한 비평이나 연구자료 등도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그중에 어느 논자는 쑤통의 신사실소설 작품이 류전원, 류형, 츠리, 팡팡의 작품에 못 미치기 때문에 독자들은 실망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쑤통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 주의를 끈다. 그는 쑤통이 현실을 관찰하여 이를 현실생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문학적 능력이 동시대 신사실 작가들에 비해 부족하다며 신사실 작가로서의 쑤통의 역량과 자질을 폄하한다. 특히 쑤통의 신사실소설이 외부현실을 세세하게 표현해내지 않고 인물의 내면 이야기에만 치중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것들이 신사실소설의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한다.⁴⁾ 물론 논자마다 자신의 문학적 취향과 가치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과 작가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른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논자의 비평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 그 같은 평가의 합당성에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본인의 비평 논리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해 줄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그의 비평에 동조하기 어렵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쑤통은 논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을 관찰하여 이를 현실생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문학적 능력이 결코 동시대 신사실 작가와 견주어 취약하지 않으며, 작품 또한 인물의 내면 이야기에만 치중하고 있지도 않다. 쑤통은 신사실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시대를 배경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중국 도시 소시민들의 고단한 생존 양상과 생존 감성을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객관현실과 내면세계를 적절히 배합하여 뾰족하고 진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쑤통의 신사실소설 작품 중 1990년대 초반에 창작된 〈일요일 아침(一個禮拜天的早晨)〉, 〈이혼지침서(離婚指南)〉, 〈결혼한 남자(已婚男人)〉를 중심으로 쑤통의 신사실소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중국의 특수한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고단한 생존을 이어나가는 소시민들의 생존모습과

4) 黃今夫 〈走出與返回—蘇童小說簡論〉: 《浙江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4년 제3기, 47쪽 참조.

그들이 느끼는 생존감이 작품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체현되는지,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아가 동시대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쑤통의 신사실소설 특징과 문학적 의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상의 억압과 폭력에 피폐된 영혼

1. 〈일요일 아침(一個禮拜天的早晨)〉

1992년에 창작된 이 작품은 당시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도시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쑤통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세속화된 일상현실의 압박으로 희생된 개인의 비극적 사망이다. 우선 내용을 간략히 소개 하자면, 이 선생은 일요일 아침 부인이 사오라고 시킨 돼지 넓적다리 살(蹄膀)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정육노점상 주인이 대신 플라준 족발(肉蹄)을 사갔고 돌아온다. 그러나 아내는 이 선생이 사온 고기가 비젯덩어리인데다가 주인에게 속아서 6위엔이나 주었다며, 환불해오라고 바가지질을 굶는다. 결국 이 선생은 시장으로 다시 가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작품 속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며 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에 '비젯덩어리'가 있다. '비젯덩어리'는 작품 속에서 '아내—이 선생—정육 노점상 주인'으로 형성되는 인물의 역학 관계에서 인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매개체이자, 이 선생을 이기적 개인주의, 욕망, 비열, 불신, 위선 등의 여러 추악한 모습들이 난무하는 세속적인 현실로 뛰어들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다. 사건의 발단은 돼지 넓적다리 살을 사오라는 아내의 요구에 이 선생이 비젯덩어리를 잘못 사오면서 시작되고, 이어 비젯덩어리 환불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은 이 선생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당신은 뭐 믿고 정육점 주인에게 6위엔이나 갖다 바친 거야?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당신 얼른 시장가서 그 정육점 주인 찾아내서, 이 비젯덩어리 돌려주고 6위엔 도로 받아 와. 당신이 안가면 내가 가. 당신한테는 6위엔이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지만 나한테는 중요해.(我問你你每月掙幾個錢? 那幾個錢養家糊口都難, 你

憑什麼白白給肉販子送去六塊錢? 你要把我氣死了。你馬上去菜場找那個肉販子, 你把這塊肥肉還給他, 把六塊錢給我要回來。你不去我去, 你不在乎六塊錢我可在乎)5)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선생 아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온통 먹고 사는 현실적인 생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형적인 서민 이즘마로, 돈에 억척스러울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인다. 반면 이 선생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나 돈에 대해서는 무심할 정도로 초연하고 수수방관적이다. 또한 환불을 해오라며 뉘달하는 아내의 말에도 단 돈 몇 푼의 이익보다 개인의 체면과 위신을 따지는 실속 없는 가장이다. 따라서 이런 아내의 입장에서 궁핍한 가정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겡덩어리를 6위엔이나 주고 사온 이 선생의 행위는 한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반면 이 선생은 돈 몇 푼에 집착하고 궁상떠는 아내의 세속적인 모습에 진저리치며 부인에게 손찌검까지 한다.

그러나 완강했던 이 선생도 끊임없이 가해지는 아내의 신세타령과 등살에 결국 항복을 하고 만다. 그리고 시장으로 주인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지만 주인은 자신은 이런 비계를 6위엔이나 받고 판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이 선생을 돈이나 뜯어내려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인다. 상도위가 무너지고 소비자에게 비겡덩어리를 죽발로 둔갑시켜 이득이나 챙기려는 꼼수와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도덕, 신의, 양심이니 하는 것들은 이미 허울뿐인 껍데기로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 같이 세속화된 현실 속에서 체면과 품위를 따지며 홀로 고고한 척 허세를 부리는 것은, 결국 삶의 주변인으로 생활의 무능력자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이에 이 선생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수수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주인과 맞선다.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내 돈 6위엔을 돌려주세요.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요. 내 책상위에는 아직도 평가하지 못한 학생들 과제가 쌓여있다고. 내가 뭐 한가해서 당신을 귀찮게 하는 줄 아시오? 무릇 매사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법. 우리 집 가정형편이 원래 좋지도 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6위엔이나 거저 가져갈 수 있단 말ियो? (我不是纏你, 我桌上還堆着學生作業沒批, 哪

5) 蘇童 〈一個禮拜天的早晨〉; 《少年血》(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3), 118쪽.

有工夫來纏你? 問題是凡是都得講理, 我這樣的家庭經濟素來拮据, 你怎麼能白白騙去我六塊錢呢?)⁶⁾

이처럼 이 선생은 자신의 체면과 위신 따위는 아랑곳없이, 심지어 자신의 궁색한 가정형편까지도 운운하며 정육점 주인을 압박한다. 이 선생의 완강한 태도에 흠칫 놀란 주인은 자신이 족발 대신 비겡덩어리를 팔았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환불대신 비겡덩어리 값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물러선다. 그 과정에서 2위엔을 달라는 이 선생과 죽어도 1위엔 5마오 밖에 못 돌려준다고 고집피우는 주인 사이에 또 한 번의 팽팽한 흥정 줄다리가 이어지고, 이번에도 이 선생은 악착같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2위엔을 돌려받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고작 1.8위엔 만을 건 낸 채 삼륜차를 타고 도주한다. 이를 본 이 선생은 또다시 정육점 주인에게 우롱 당했다는 수치심과 모욕감에 이성을 잃고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며, 악착같이 주인의 삼륜차를 뒤 쫓아간다.

이런 이 선생에게서 점잖은 지식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오로지 2마오를 쟁취하기 위한 일념으로 주인의 뒤를 맹렬히 쫓는 이 선생의 모습에, 쭈뼛은 세속화된 사회현실로 내몰려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속적으로 변모한 지식인의 모습을 투영한다. 아울러 정육 노점상 주인의 사기와 배신을 통해 신용, 신뢰, 양심 등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이기주의, 불신, 금전만능주의 등의 세속적가치가 팽배해가는 중국 세태의 단면을 보여준다. 결국 세속적 현실 앞에 그간 억척스러운 아내의 타박과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사로서의 품위와 체면을 보여주었던 이 선생의 고고한 자존심은 여지없이 몽개져버렸다. 주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이 선생의 다짐은 결연하다 못해 일종의 비장미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렇게 단 돈 2마오를 쟁취하기 위해 악착같은 투지와 집념을 불태웠던 이 선생은, 허망하게도 이 2마오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만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재난의 순간이었다. 냉동 생선을 싣고 오는 한 대의 트럭이 정면으로 달려왔고,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끔찍한 비명소리

6) 앞의 책, 121쪽.

가 들렸다. 그리고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늦봄의 어느 아침, 그것도 일요일 아침이었다. 햇살이 교차로 사고현장 위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상춘수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교차로로 몰려나와 시멘트 바닥위에 흥건히 젖어있는 선홍색의 핏자국을 봤다. 핏자국 옆에는 낮은 낡은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었다. 자전거는 부서졌지만 비켓덩어리는 멀쩡하게 자전거 핸들에 매달려있었다. 아침 여덟 아홉시 경, 햇살 아래에서 열린 회백색 빗길을 뚝 비켓덩어리가 반짝반짝 거렸다. (這是一個不容選擇的災難的時刻, 一輛運送冰凍海魚的卡車迎面駛來, 司機在踩動剎車匣的同時聽到一聲狂叫, 然後是自行車被撞倒後發出的令人恐怖的聲響。是一個暮春的早晨, 並且是一個禮拜天的早晨。陽光淡淡地照耀着路口的車禍現場。香椿樹街的人們來到路口, 看見水泥地上有一灘鮮紅的血污, 血污的旁邊橫陳着一輛熟悉的破自行車, 現在牠已經完全散架了, 而自行車籠頭上懸挂的一塊肥肉却完好無損。在早晨八九點鐘的陽光下, 那塊肥肉閃爍着模糊的灰白色的光芒。)⁷⁾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이 선생의 마지막 비극적 장면은 서술자의 지극히 냉정하리 만큼 담담한 어투와 객관적 서술이 어우러져, 독자로 하여금 이 선생의 죽음을 냉정한 시선으로 응시하게 한다.⁸⁾ 특히 참혹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켓덩어리가 손상 없이 햇살아래에서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는 모습은, 그의 낭자한 선홍빛 핏자국과 대조를 이루며 오싷한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쭈통은 이 선생의 허망하고 아이러니한 죽음을 통해 자질구레하고 미시적인 일상소사

7) 앞의 책, 123쪽.

8)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사실소설의 특징과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원생태(原生形態)'와 '환원(還原)'이란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이 개념이 신사실소설의 내용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사실소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영도서술(零度敘術)' 혹은 '영도감정(零度情感)'이란 개념이 사용된다. 롤랑 바르트의 저서 <글쓰기 영도(寫作的零度)>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냉정한 서술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사실소설의 형식적인 특징을 구현하는 미학적 잣대가 된다. 陳曉明 <反抗危機: 論新寫實>; 《文學評論》1993년 제2기, 91쪽과 100쪽 참조. 陳思和 <中國當代文學史教程>(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9), 308-309쪽 참조. 이 선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쭈통은 이같은 '영도서술'을 통해서 이 선생의 죽음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서술자의 감정을 배제한 채 마치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장면은 독자들이 사고의 참상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선생 죽음에 대한 어떤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단지 이 선생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응시하도록 유도한다.

(小事)가 일종의 억압과 폭력이 되어 소시민을 각박한 생존의 장으로 내몰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대재앙마저 가져오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준다.

2. 〈이혼지침서(離婚指南)〉

〈결혼한 남자〉와 〈이혼지침서〉는 현실생활 속 양보(楊泊)라 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번 작품들은 내 창작에 대한 또 한 번의 반발이다. 나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자 했다. 이상주의가 점점 사라진 자리를 어둡고 평범한 현실이 대신한 가운데, 남자의 궁색하고 고독한 일면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는 양보의 다리와 몸, 심지어 그의 머리가 어떻게 세속의 늪 속으로 빠지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남자 혹은 여자의 공포와 발악이 결혼생활의 대부분의 풍경을 차지하고, 나는 양보와 같은 이들이 망신장이 된 몸으로 기어올라 왔을 때, 그들의 피폐해져버린 영혼은 이미 무서운 허무의 나라 속으로 꺼져버린 것을 상상했다. (〈已婚男人〉和〈離婚指南〉寫的是男人, 一個現實生活中的名叫楊泊的男人, 牠們是對我自身創作的一次反駁, 我試圖關注現實, 描摹一個男人在婚姻中的處境, 理想主義一點點消逝換之以灰暗而平庸的現實生活, 男人困窘而孤獨的一面令人回味。我試圖表現世俗的泥沼如何陷住了楊泊們腳、身體甚至頭腦, 男人或女人的恐懼和掙紮構成了大半分的婚姻風景, 我設想當楊泊們滿身泥漿爬出來時, 他們疲憊的心靈已經陷入可怕的虛無之中。)⁹⁾

책 서문에서 쭉뚱이 직접 밝히고 있듯이 〈결혼한 남자〉와 〈이혼지침서〉 이 두 작품은 결혼생활을 소재로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지만, 온갖 세속적인 일상현실의 늪에 빠져 발버둥치는 양보(楊泊)라 불리는 한 남자의 피폐된 영혼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혼지침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은 '이혼'을 둘러싸고 부부간의 팽팽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결국 이혼의 실패로 좌절을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양보는 아내 주원(朱堯)과의 사이에 두 살짜리 아들을 둔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작품은 양보네 가정의 일상적인 아침 풍경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서술자의 상세한 묘사로 시작된다. 부산을 떠는 주원의 잔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양

9) 蘇童《婚姻即景》(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3), 2쪽.

보내 하루는 아이를 오줌 누이고, 우유를 갖다 주고 옷 입히고, 장보러 가고, 아이를 맡기는 등등 매일 동일한 일상의 연속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몇 년 째 틀에 박힌 일상생활로 권태가 극에 달한 양보는, 아내를 향해 「나 이혼할래(我要離婚)」라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한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주원은 양보의 강경한 태도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식하고, 양보에게 이혼 사유가 뭐냐고 따진다.

넌더리가 나서 그래. 지긋지긋한 느낌이 하루하루 심해져서, 결국은 혐오스러워졌어. 어쩌다가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불을 켜고 보면, 당신이 코까지 골며 달게 자는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여. 그럴 때는 진짜 총이라도 있길 원했어. 총이라도 있다면 어쩌면 당신 얼굴을 향해 쏘버렸을지도 몰라. 나는 여름에 당신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도 혐오스러워. 난 당신이 식사 한 후에 이 쭈시는 동작이며 식사할 때 찻잔거리며 내는 소리도 혐오스러워. 당신은 항상 새 등지처럼 과마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홍콩 연속극이나 보지. 당신은 책이나 신문 같은 것은 일절 안보면서, 항상 나한테 사랑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다고 말하지. 나는 당신이 이웃과 교체하는 것도 혐오스러워. 복도에서 살갑게 다정하게 굴다가 문 닫고 나면 그 사람 조상 삼대 까지 욕을 해대잖아. 당신은 저속하고 가식적인 여자야. (主要是厭煩, 厭煩的情緒一天天惡化, 最後成爲讐恨。有時候我通宵失眠, 我打開燈看見你睡得很香, 還輕輕打鼾, 你的睡態丑陋極了, 那時候我希望有一把真正的手槍, 假如我有一把真正的手槍, 說不定我會對准你的臉開槍。我厭煩你夏天的腋裏散發的狐臭味。我厭煩你飯後剔牙的動作, 你吃飯時吧嘍吧嘍的聲音也讓我討厭。你總是把頭髮燙得像鳥窩一樣, 一到夜裏你守着電視沒完沒了地看香港電視連續劇。你從來不讀書不看報, 却總是來跟我討論愛情, 討論國家大事。我討厭你跟鄰居拉拉扯扯, 在走廊上親親熱熱, 關上房門就罵人家祖宗三代, 你是個庸俗而又虛偽的女人。)¹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양보는 몇 년 째 계속되는 일상생활에 권태감을 느낀 지 오래됐으며, 아내 역시 양보에게는 무미건조한 일상생활의 한 일부로 각인될 뿐이다. 육아문제, 몇 년째 주원의 닦달과 채근으로 시작하는 아침 풍경과 자질구레한 일상소사 그리고 육아와 가사에 찌들어 점점 불품없어지고 속물적으로 변하는 아내를 보며 양보는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권태와 환멸감을 느낀다. 심지어 총으로 아

10) 앞의 책, 201-202쪽.

내의 얼굴에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양보에게서, 그를 옥죄고 압박하는 일상에 대한 거부와 혐오감이 극한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갑작스런 이혼선언은 일상생활의 압박으로 억눌린 자아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기 위해 선포하는 일종의 혁명적 선언이다. 즉 양보는 자신을 구속하는 역겹고 혐오스런 일상의 족쇄와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실로 '이혼'이라는 장밋빛 이상을 갈망한다. 게다가 양보에게는 젊고 아리따운 내연녀 위충(俞聰)이 있다. 일상과 아내에 대한 권태와 혐오감이 그를 짓누를수록 양보는 위충과의 달콤한 밀회를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이혼을 통해서 자유를 만끽하길 더더욱 갈망한다.

그러나 양보의 이혼은 주원의 거액의 위자료 요구, 처갓집 식구들의 구타와 위협, 이웃들과 직장동료들의 따가운 눈총과 구설수, 주원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 등등의 현실적인 장벽 앞에 가로막히며 점점 잿빛으로 변해간다. 설상가상으로 현실의 도피처이자 안락처로 생각했던 위충마저 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죄어오고, 이에 양보는 서서히 지쳐간다. 어느 날 양보는 자신의 이혼문제를 상담 받고 해법을 구하기 위해 라오진(老靳)을 찾아간다. 라오진은 양보가 대학에 다닐 때 철학을 가르치던 강사로, 헤겔,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등의 저작을 줄줄 외울 정도로 철학에 조예가 깊어 양보가 존경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의 라오진은 더 이상 철학적 사상과 관념을 탐구하던 학자가 아니라, 거리에서 수박을 파는 수박장사일 뿐이다. 의아해하는 양보에게 라오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루는 헤겔이 나한테 그러더군. 자기를 쓰레기통으로 갖다 쳐 박아 버리라고. 그리고 자기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거리로 나아가 부수입이나 건지라고 하더군. 또 헤겔은 내게 생존이 사상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내가 자신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현실에서는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더군. 사상이 뭐가? 개소리고, 똥이고, 그저 씹다버린 수박껍데기 일 뿐이야. (有一天老黑對我說, 把我扔到垃圾堆里去吧, 你有時間讀我的書, 不如上街去撈點外快。老黑還對我說, 生存比思想更加重要, 你從我這里能得到的, 在現實中全部化爲烏有, 思想是什麼? 是狗屁, 是糞便, 是一塊被啃得殘缺不全的西瓜皮。)¹¹⁾

라오진의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언사는 사상이니 관념이니 하는 비현실적인 이상

11) 앞의 책, 231쪽.

주의자였던 자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상이 뭔가? 개소리고, 똥이고, 그저 씹다버린 수박껍데기 일 뿐이야」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에게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세속적인 자기 정체성을 맘껏 드러낸다. 이처럼 엘리트 지식인의 자존감과 이상은 현실의 생존문제 앞에 철저히 폐기되고, 오직 생존과 돈벌이를 위해 변절한 장사꾼 라오진만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라오진은 이혼이라는 과제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양보에게 자신의 곧 출간될 저서 《이혼지침서(離婚指南)》를 추천하며, 20% 싸게 해 줄테니 꼭 사 보라고 권고한다. 제자의 진지한 고민 상담마저도 자신의 책 판매를 위한 상술에 이용하는 라오진의 모습은 세속화된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는 몰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스승이었던 라오진에게 고민 상담을 받고 확실한 해법을 얻고자했던 양보의 노력은 스승의 알팍한 상술에 우통당한 채 무위로 끝난다. 그리고 겨울 내내 한 가정을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한 양보의 이혼선언은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

권태로운 결혼생활과 자질구레하고 반복된 일상의 압박에 지쳐버린 한 남자가 현실의 권태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이라는 탈주를 꿈꿨지만, 그는 결국 현실의 장벽에 막혀 좌절하고 말았다. 이혼을 가로막는 수많은 현실조건과 제약, 세인의 따가운 시선, 지난한 과정 속에 소진되고 피폐해버린 자이를 보며, 양보는 결국 「나는 이제 더 이상 이혼 할 힘이 없어(我已經沒有力氣去離婚了)」라는 자조 섞인 체념과 탄식을 내뿜는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혼을 포기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 뿐,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상의 연속과 끝없는 번민뿐이다. 이처럼 또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온 양보의 피폐된 모습을 통해 쑤통은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정신적 미아(迷兒)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보여준다. 즉 쑤통은 일상현실의 육중한 무게와 높은 장벽 앞에, 현실의 문제들을 도외시한 장밋빛 이상추구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의 일면을 보여준다. 아울러 쑤통은 라오진이라는 특수한 인물형상을 통해 당시 상업화되고 자본주의화 되는 중국 사회현실 속에서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지식인의 왜곡된 모습과 세태를 보여준다.

3. 〈결혼한 남자(已婚男人)〉

〈결혼한 남자〉는 양보를 주인공으로 삼고 한 가정의 결혼생활을 공통소재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혼지침서〉의 자매편으로 간주된다. 이 작품에서 쑤통은 지리멸렬한 결혼생활과 일상의 족쇄에 구속되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생존모습을 보여 준다. 작품은 양보를 응시하며 생존의 모습과 의미 탐색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서술자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가을이 되었지만 양보는 여전히 여름옷을 걸치고 있다. 양보는 옅은 하늘색 셔츠와 유행지난 일자청바지에 검은색 가죽 샌들을 신고 있다. 가끔 바람 불 때 드러난 양보의 창백한 발가락을 보면, 당신은 생존의 모습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到了秋天,楊泊的身上仍然穿着夏天的衣服,一件淺藍色的襯衫,一條式樣已經過時的直筒牛仔褲,楊泊的腳上仍然穿着黑色皮涼鞋,有時候在風中看見楊泊裸露的蒼白的腳趾,你會想起某種生存的狀態和意義。)12)

서술자는 가을임에도 여전히 철지난 여름옷을 입고 있는 양보의 모습과 샌들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발가락을 통해서, 양보의 열악한 생존여건과 처량하고 궁상맞은 모습을 환기시킨다. 주인공 양보는 아내 평민(馮敏)과의 사이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다. 세상은 가속화되는 개혁·개방의 물결로 ‘샤하이(下海)’ 열풍¹³⁾이 몰아닥치고, 사람들은 앞 다투어 창업의 행렬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양보도 열풍에 동참해 ‘경제정보회사’를 차렸지만 2년 만에 사업에 실패하고 몇 년 째 백수생활 처

12) 앞의 책, 165쪽.

13)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로 ‘샤상(下鄉: 농촌으로 내려가다)’이 있다면, 덩샤오핑 시대의 달라진 사회·문화 양상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키워드로 ‘샤하이(下海)’를 들 수 있다. 이 말은 본래 ‘샤하이타오진(下海淘金: 바다에 들어가 금을 캐다)’의 준말로 ‘돈벌이 판에 뛰어들다’, ‘개인 사업을 하다’는 뜻이다. 주지하다시피 덩샤오핑이 ‘선부론(先富論)’정책을 발표한 이후 일반 대중들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돈벌이의 바다로 뛰어들어 부를 축적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샤하이’ 현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빠오과후(爆發戶: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줄부)’나 ‘따관(大款: 큰 부자, 큰 손)’ 등이 출현하여 사회적으로 샤하이 열풍이 휘몰아쳤다. 정인갑 《중국문화.com》(서울, 다락원, 2003), 87쪽 참조.

지이다. 빗쟁이들의 연일되는 독촉 및 폭언과 폭력, 각종 세간 강탈, 점점 가중되는 아내와의 갈등과 마찰에 양보의 결혼생활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쭈통이 양보로 대변되는 도시 소시민의 생존모습을 탐색하는데 있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내와 가정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개인의 우울한 생존모습이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로 양보의 집에는 빗쟁이들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일이 다반사다. 저항은커녕 빗쟁이들을 도와 세간을 날라주고, 생존 자체가 급선무인 절박한 현실에서도 빈둥거리는 양보를 보며 평민은 분노한다. 반면 양보에게 아내와 가정이란 마치 삶의 전장(戰場)과도 같다. 평민은 눈만 마주치면 「냉장고가 없는데 아이의 우유는 어디다 놔둬(冰箱也沒有了, 孩子的牛奶怎麼存放?)」, 「텔레비전도 없는데 밤엔 뭘 해?(電視也沒有了, 晚上怎麼打發?)」,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어떻게 살림을 꾸리라는 거야(你知道這個月還剩幾塊錢生活費? 這個家你讓我怎麼當?)」 등등의 세속적인 일상 문제들로 양보를 억압하고 옥죄다. 또한 걸핏하면 가출을 일삼는 평민 탓에 혼자 남게 되는 빈 집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공간으로 전도되어, 양보를 유폐시키고 그에게 자질구레한 일상소사와 육아라는 생활의 족쇄와 수갑을 채운다. 이처럼 아내와 집은 양보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를 옥죄고 짓누르는 억압과 폭력의 대상으로 전도된다. 서술자는 작품 곳곳에서 양보의 모습을 「그는 매우 침울해보였고 또 고독해보였다(他顯得沉重而又孤獨)」, 「그의 걸음걸이는 매우 피곤했다(他的步態很疲乏)」, 「그의 얼굴은 다소 초췌했다(他的面容有些憔悴)」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삶에 찌든 강박한 아내의 억압과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의 굴레 속에서 정신적인 기갈을 느끼는 양보의 우울한 생존모습을 투영한다.

양보의 이 같은 우울하고 고독한 정서는 양보가 백수로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게 된 뒤로 더더욱 심화된다. 평민이 또 가출하고 혼자 남은 양보는 집에 쌀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자전거를 끌고 아침 일찍부터 시장 길에 오른다. 쌀을 사갖고 돌아오는 길, 타인들은 모두 직장을 갖고 출근을 하느라 분주하고, 학생들 역시 등교로 인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느라 거리는 온통 인파와 자동차·자전거 행렬로 넘쳐난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일상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고 있다. 그러나 양보는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외되고 단절된 모습을 발견한다.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그저 백수의 신

분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는 자신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정과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지 못한 양보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아울러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은 점점 깊어져간다.

어느 깊은 밤 양보는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다. 그것은 풍란 화분이었다. 아파트 베란다에 놓아두었던 화분이 간밤의 세찬 바람에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애지중지하던 풍란화분의 추락은 양보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때부터 양보는 이상한 환청에 시달리게 된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뭔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기 귀가 환청을 듣는 것이라 느꼈다. 그 소리는 자신의 의식이 빚어낸 가공의 소리였지만, 양보는 마치 그것이 와주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이런 무의미한 기다림 속에 그의 마음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억제할 수 없는 불안감과 좌절감이 그를 따라왔다. (恍惚中總是聽見那聲可怖的重物墮地的響聲，他肯定自己耳朵出現了幻聽，那個聲音是虛假的意識的產物，但楊泊好像等待着他的來臨，在這種無謂的等待中，他的心情變得很惡劣，伴隨着難以抑制的焦躁和沮喪。)14)

인용된 ‘무거운 물체가 추락하는 소리’란 훗날 베란다 밖으로 몸을 날려 삶을 마감하는 양보의 비극적 죽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소리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소리가 실제 현실화되길 기다리는 양보의 심리는 양가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즉 양보는 죽음이 임박하리라는 불길한 예감과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죽음의 욕망에 대해서 원초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죽음이 현실의 억압과 삶의 절망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 줄 탈출구이자 안식처라는 측면에서 죽음을 동경하고 기다린다. 결국 죽음에 대한 양보의 욕망과 동경은 자신을 짓누르고 좌절시키는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길 원하는 양보의 처절한 몸짓이기도 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민이 가출한 후 혼자 남아 아이를 돌보고 있던 양보는 난장판 같은 집안 살림과 끊임없이 보채고 우는 아이를 보

14) 蘇童《婚姻即景》(南京，江蘇文藝出版社，1993)，184쪽.

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다. 눈앞에 펼쳐진 흑독한 상황은 시한폭탄 처럼 은폐되어 있던 양보의 죽음에 대한 욕망에 불을 지피고, 양보를 존재론적인 위기로 몰고 간다. 결국 양보는 「제발 나 좀 가만 놔두렴.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你讓我安靜一會兒吧。我已經很疲倦了)」라는 히스테리컬한 마지막 절규와 함께 베란다 밖으로 몸을 날려 생을 마감한다.

 낮 12시 15분, 양보는 몸을 날려 이 세상을 떠났다. 양보는 기이한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져 마치 한 장의 나뭇잎처럼 자유롭게 추락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바람을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느끼는 죽음의 감정이다. (中午十二點一刻, 楊泊縱身一躍, 離開世界。楊泊聽見一陣奇異的風聲。他覺得身體輕盈無比, 像一片樹葉自由墮落。他想這才是真正的隨風而去。這才是一次真實的死亡感覺。)¹⁵⁾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일상이 가하는 억압과 폭력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이던 양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자 하나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양보의 투신자살은 지리멸렬하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최종 결단이었다. 특히 인용문에서 ‘마치 한 장의 나뭇잎처럼 자유롭게 추락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서술자의 말은 살아생전 양보를 짓눌렀던 생존의 중압과 강박증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양보를 억압했던 가혹했던 생존현실과 대조적으로 죽음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는 양보의 자유롭고 평안한 영혼을 강조한다. 인용문에서 보여지는 다소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묘사는 죽음이라는 탈출구를 통해서 양보가 느끼는 영혼의 자유와 평온함을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된 심미적 장치로 보여진다.

이처럼 쑤통은 양보의 모습을 통해 당시 ‘샤하이(下海)’ 열풍이 휘몰아치는 특수한 사회현실 속에서 시대와 병행하고자 샤하이 열풍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하고, 결국 삶에 대한 무기력과 환멸감으로 자살하고자하는 도시 도시민의 비극적인 생존모습을 짙진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15) 앞의 책, 194쪽.

Ⅲ. 쑤통의 신사실소설의 특징 및 의의

이상으로 우리는 쑤통의 신사실소설 작품을 통해서 당시 1990년대 중국의 특수한 사회·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고단한 생존양상과 그들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들을 옥죄고 억압하는 일상 현실에 맞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실패한다. 이들의 고달픈 생존환경과 고투 그리고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쑤통의 시선과 태도가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쑤통의 소설이 동시대 신사실소설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문학적 특징과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츠리(池莉)의 경우 각박한 세속적 현실 앞에서 희망의 씨앗을 품고, 괴롭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래도 꾀꾀하게 견디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인간과 삶에 대한 긍정과 포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류전윈(劉震雲)의 경우도 자질구레하고 번다한 일상소사로 가득 찬 세속적 삶이지만 이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시민의 생존상황을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삶에 대한 끈끈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처럼 츠리와 류전윈은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바탕으로, 비록 고달프고 힘겹지만 감내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들의 작품을 읽노라면 우울하거나 염세적인 느낌을 받기 보다는, 그래도 산다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안고 긍정하는 힘을 갖게 된다.

반면 쑤통은 삶에 대한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 정서를 혼자 걸머진 것처럼, 회의와 환멸에 가득 찬 시선으로 삶을 인식한다. 작품 속 쑤통이 그려내는 삶은 한결 같이 고통스럽고 자질구레하고 권태롭고 무의미한 삶인데다가, 인물들은 이 같은 삶의 압박과 억압 속에서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들의 예기치 못한 죽음을 통해서도 삶을 대하는 쑤통의 비정한 시선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구보다 세속의 질서에 충실한 아내의 담달과 등쌀에 떠밀려 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 선생은, 세속적 욕망과 생존의 경쟁이 난무하는 그 곳에서 자신의 자존감과 권리, 세속적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쟁취하지 못한 채 허망한 죽음을 맞는다. 그의 죽음이 비록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사라 할지라도, 이 같은 장치와 결말은 삶을 인식하는 쑤통의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사색의 표출이다. <이혼지침서>의 양보는 아내와의 지리멸렬한 결혼생활과 일상생활의 권태로움에 맞서 일탈과 방종의 돌파구로 이혼을 선언한다. 그러나 그 역시 결국 거대한 현실의 장벽과 제약 앞에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실패를 맞는다. 양보의 실패는 부조리한 현실에 가로막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이상적 자아의 처지를 보여준다. 결국 양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지루하게 반복되는 지리멸렬한 일상의 늪이다. 특히 <결혼한 남자>의 주인공 양보의 삶은 다른 인물보다도 더 열악하고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실업자의 처지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삶이 가하는 억압과 폭력 속에서 몸부림치던 양보는 결국 정신적 자유를 갈망하며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이 같은 양보의 자살은 삶에 대한 쑤통의 환멸감과 허무감이 빚어낸 극도의 비관적 정서와 절망감의 표출이다.

이처럼 소시민의 고단한 생존 현실과 그들의 비극적 숙명은 삶에 대한 쑤통의 비관적 심회를 담아내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세상을 염세적으로 진단하고 바라보는 쑤통의 냉정한 시선에 대해 너무 비정한 것은 아니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츠리의 작품 속 인자허우(印家厚)와 같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지난한 현실을 인내하고 긍정하는 삶에 더 큰 가치와 의의를 들지도 모른다. 실제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인자허우처럼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을 품고 간고(艱苦)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또 혹자는 류전원이 투영해내는 샤오린(小林)처럼 비록 이상적 자아는 거대한 세속적 현실 앞에 붕괴되었지만 두부 사는 일과 같은 소소한 욕망에 집착하고 이를 통해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얻으며, 세속적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건 환상의 최면을 벗어내고 또 소소한 욕망을 채워주고 실현시키는 물질적 조건의 장막을 걷어낸다면 과연 어떨까?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주체다. 욕망을 실현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욕망을 꿈꾸며 스스로를 부추기고, 우리 자신을 또다시 욕망의 노예로 감금시킨다. 더구나 삶의 굴레 속에서 생존자체가 고단하고 지리멸렬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사치이고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결국 쑤통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같은 우리의 고단한 생존환경과 부조리한 삶을 직시하고 세속과 이상의 경계에서 우왕좌왕 허우적대다, 마침내 세속의 수렁 속

으로 함몰되고 마는 비극적인 삶과 영혼을 형상화 낸 것이다. 이에 쭈통은 자신의 작품을 가리켜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소설일지도 혹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현실일지도 모른다(這或許是令人恐懼的小說, 或許就是令人恐懼的一種現實)」¹⁶⁾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것이다. 이처럼 쭈통은 동시대 신사실작가들이 삶의 가혹함과 절망적인 요소를 희석시켜 고단한 삶을 인내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삶의 가혹성, 억압, 공포, 죽음, 환멸, 허무 등등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와 인생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획득하게 해준다. 여기에 바로 쭈통의 신사실소설이 갖는 독특한 문학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한 때 전쟁같이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혹은 지금도 현실 속에서 고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쭈통의 신사실소설은 어떤 작가의 작품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參考文獻】

- 쭈통, 김택규 옮김 《이혼지침서》 서울, 아고라, 2006
 쭈통, 문현선 옮김 《마씨 집안 자녀 교육기》 서울, 아고라, 2008
 천쓰허, 노정은, 박난영 옮김 《중국 당대 문학사》 서울, 문학동네, 2008
 장운선 〈80년대 말 중국 문단에 나타난 새로운 문학과 문화의식〉; 《중국현대문학》 제23호, 2002, 12
 黃今夫 〈走出與返回—蘇童小說簡論〉; 《浙江師大學報(社會科學版)》1994年 3期
 彭基博 〈價值·立場·策略—蘇童文本論〉; 《中國現代, 當代文學研究》1993年 5期
 陳曉明 〈反抗危機: 論新寫實〉; 《文學評論》1993年 2期
 張德祥 〈“新寫實”的藝術精神〉; 《文學評論》1994年 2期
 劉曉文、陳慶祝 〈悲劇及其消解—析《離婚指南》的精神文化意義〉; 《當代文壇》1998年 5期
 左蔚 〈當代家庭婚姻題材作品異同—蘇童《離婚指南》與池莉《不談愛情》之較〉; 《安徽文學》2008年 3期
 李冬香 〈《離婚指南》悲劇之探尋〉; 《電影評介》2009年 21期

16) 앞의 책, 2쪽.

盧頌梅〈絕世的蒼涼—以《已婚男人楊泊》和《離婚指南》為例評蘇童的婚姻小說〉：《牡丹江教育學院學報》2011年 3期

蘇童《少年血》南京，江蘇文藝出版社，1993

蘇童《婚姻即景》南京，江蘇文藝出版社，1993

【中文提要】

本論文是以蘇童的新寫實小說—《一個禮拜天的早晨》、《已婚男人》、《離婚指南》為中心，考察了作家對貫穿小說中的核心內容—‘生存問題’的思考和探索是如何反應在作品中的。同時本論文還考察了其他新寫實小說和蘇童新寫實小說的差異，從而揭示了蘇童新寫實小說的特征及其在文學上的意義。蘇童的作品中描寫了各種各樣的人物，這些人物都是我們日常生活中所面對的极其平凡的小市民。作品毫無誇張地、客觀真實地把發生在這些人身上的平凡而實際的生活瑣事反映了出來，在這裏我們可以看出這些作品所具有的新寫實小說的正體性。作品中描寫的日常生活風景并不是依据某種理念或者價值觀來進行加工的生活，而是新寫實小說所主張的‘現實生活原生形態’的還原的生活。作品中包括主人公在內的所有小說人物都不是用某種觀念和思想武裝起來的人物，也不是傾倒的英雄的大人物，而是我們身邊可以看到、可以接觸到的這個時代的平凡的小人物。小說中沒有對他們的生活以及他們的想法和感覺進行解釋或批評，而是如實客觀地還原着他們，毫無任何的加工，這一點使作品明確地體現了‘新寫實小說’的正體性。

蘇童作品中的人物都為一些瑣碎的日常小問題而矛盾着、煩惱着，他們為了解決自己所面臨的束縛和壓抑着自身的生存現實的問題而奮斗着，但是結果大多是受到挫折和失敗。唯有蘇童把焦點對准了在繁亂的生活和現實中，戴着枷鎖而生活的小市民的悲劇生活和命運。作家通過對他們的生存方式和內心世界的客觀描寫，讓我們看到了在大變革的時代背景下，背負着枷鎖、生活在恐懼中的小市民的現實生活和他們的內心世界。

【主題語】

蘇童, 新寫實小說, 小市民, 悲劇生, 生存狀態

투고일: 2011.10. 8 / 심사일: 2011.10.24~11. 6 / 게재확정일: 2011.11.10